

콘스님 수행한담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⑦

所以道吾舞弄 石華拈弓 秘魔擎杖
소이도오무놀 석공염궁 비마경차
俱胝屈指 忻州打地
구지수지 혼주타지
雲巖獅子 莫不發明 這着大用
운암사자 막불발명저작대용
於日用不迷 自然縱橫無碍
어일용불미 자연종횡무애

그러므로 도오스님이 춤을 잡고 춤을 춘 것(후학이 법을 물으면 도오스님은 춤을 들고 춤을 추었다)이나, 석공스님이 활을 당긴 것(원래 사냥꾼이었던 석공은 깨달은 뒤 활을 당겨 과거를 맞추는 시능으로 법을 말했다)이나, 비마스님이 작살을 든 것(작살을 들어서 법을 보았다)이나, 혼주스님이 땅을 두드린 것(땅을 치는 것으로 법을 보았다)이나, 운암스님의 사자(그는 사자를 만들어 놓고 법을 물으면 그 사자를 희롱하는 것으로 법을 보았다) 등이 모두 이 진심의 큰 작용을 나타낸 것 아닙니까. 날마다 작용하는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는다면 절로 자유자재하여 걸림이 없을 것이

다. 어찌서 그런 줄을 아는가 하면 시험삼아 그것을 말해보라. 심묘한 본체(妙體)는 움직이지 않아서 온갖 상대를 초월하여 일체의 형상을 떠났으므로 본성을 깨달아 증득한 자가 아니면 그 이치를 헤아리지 못한다. 그리고 심묘한 작용(妙用)은 인연을 따라 온갖 종류에 응하여 거지되어 허상(虛相)을 세우므로 마치 형상이 있는 것 같다. 이렇듯 유상(有相)이다 무상(無相)이다 하는 면으로 본다면 하나가 아닌 것이다.

又用從體發 用不離體 體能發用
우용종체발 용불리체 체능발용
體不離用 約此不相離理故 非異也
체불리용 약치불상리이고 비이동
如水以濕為體 體無動故 波以動
여수이습위체 체무동고 파이동
爲相 因風起故 水性波相 動與不動故
위상 인풍기고 수성파상 동여부동고
非一也 然波外無水 水外無波
비일야 연파외무수 수외무파
濕性是一故 非異也 類上體用一
습성시일고 비리아 유상체용일

“날마다 작용하는 마음 미혹하지 않으면 절로 자유자재하여 걸림이 없다”

다. 5. 진심의 본체와 작용은 같은 하나인가 다른 것인가(眞心體用一異)

異 可知矣 이 가지의

또 작용은 본체로부터 생기는 것이니 작용은 본체를 떠난 것이 아니며, 본체는 능히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니 본체는 작용을 떠난 것이 아니다. 이렇듯 서로가 떠남이 없는 이치를 본다면 다른 것이 아니다. 마치 물이라는 것은 습기(濕氣)가 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체는 움직이지 않다. 그러나 (그 본체가) 움직이므로써 물결(파도)이라는 형상을 이루게 되는데, 이는 바람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물의 성(性): 즉 습기라는 움직이지 않는 본체)과 파도라는 형상으로 본다면 움직이는 면과 움직이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파도를 떠나서 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을 떠나서 파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습기의 본성은 하나가기 때문에 다르지가 않은 것이다. 이상으로 미루어보아 본체와 작용이 하나인지 다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김원각(시인)

일웅스님 (대구 법흥사 주지)

나는 팔공산자락 바로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은 당시 팔공산 동화사 승통(나라에서 승려들에게 내린 직위: 지금의 주지)이셨는데 인근 고을에까지 알려진 명필이었습니다. 슬하에 딸만 하나 두었는데 아들을 얻기위하여 어머니가 동화사 금당에서 백일기도를 해서 저를 낳았다고 합니다. 작은 외삼촌도 영친은 해사스님으로 있는 등 친 외가가 모두 독실한 불교집안이었습니다. 태어나기전부터 출가의 인연이 고루 갖추어진 셈이지요.

내가 세살되던 해 유행성감기로 조부님과 아버님 그리고 누님을 모두 잃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10년후 서당공부를 어느정도 마치고자 자연스럽게 동화사로 입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생사의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찌 대장부라 하며 속세의 불은(佛恩)은 또 어찌 같으리오” 스스로 각오를 다지며 1년여의 피나는 행자시절을 마치고 동화사선원장으로 계시던 대우당 서화(瑞華)스님을 은사로 삼발식을 할 때는 선친의 모습이 어렵듯 하게 떠올라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 부모님의 은혜와 불연의 지중함에 감격이 복받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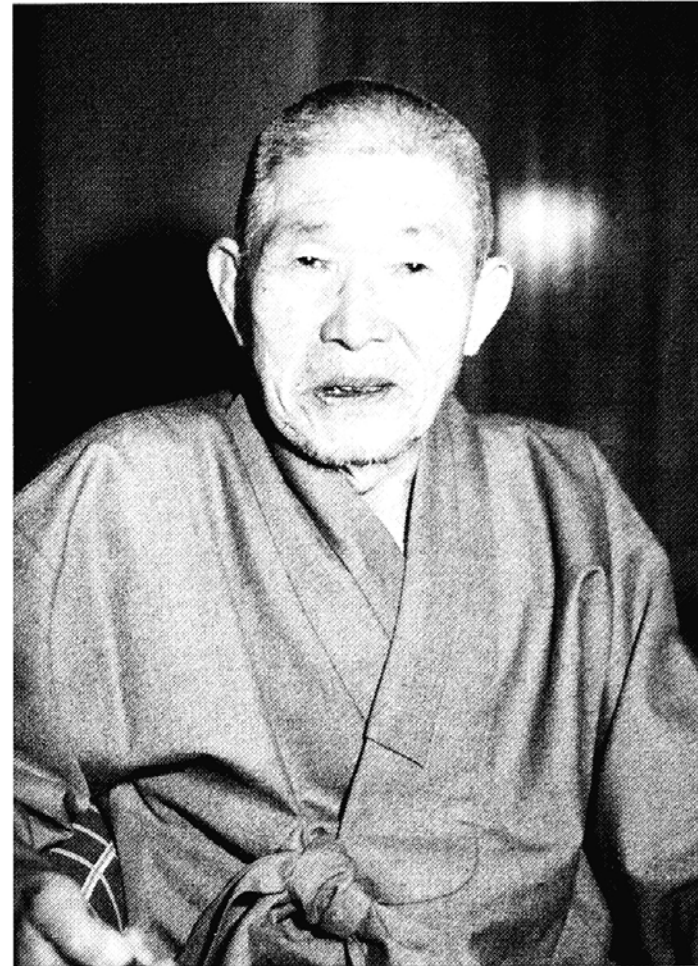
은사스님은 제자들의 공부자리를 단련(鍛鍊)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시험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공양 때가 되면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심하게 꾸중하시기도 하고 된장국을 었려 버리게도 하셨습니다. 행동에 소홀함이 있으면 모진 매질까지도 서슴지 않으셨는데 남들이 보는 앞이라고 사정을 봐주지 않았어요. 항상 깨어있으면서 화두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었고 흐리멍덩하게 망상에 젖어있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지요. 마음이 느슨해지면 탐진치 삼독이라는 도적이 쥐도 새도 모르게 침범합니다. 침범한 뒤에 쫓아내려면 곱절 힘이 들므로 늘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항상 마음을 단련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중국의 입제스님같은 분은 본래 한 생각 돌이켜 한 물건도 없으면 굳이 따로 도를 닦을것도 없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그 한 생각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세생생 내려오는 훈음이 있어 마음을 그대로 방일하면 탐진치 삼독에 빠져들기가 십상인 까닭이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화두다 관법이다 영법이다 해서 갖가지 수행방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두참구법이 가장 수승한 견성법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 마음공부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

이 없다고도 해요. 그런데 요즘은 화두를 보배처럼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화두 드는걸 자랑삼아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 화두란 평상 눈감을 때까지 갖고 가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실익은 남자들이 깨었다는 등 견성했다는 등 하지만 부처님 말씀 가운데 ‘중지소지비어경(靈智所知非餘境)’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진득한 지혜는 다른 경계가 없다는 뜻인데 깨었다는 그 말부터가 공부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다니는 꼴입니다.

영불기도는 이기적인 대가를 바라면서 욕심으로 하면 위험하지만 깨달음을 위한 수행의 방편으로 한다면 다른 수행법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고 또 행주좌와 어

- 1916년 대구 생
30년 동화사에서 조대우스님을 은사로 득도
30년 황보승을 계사로 사미계
37년 동화사 전문강원 졸업
39년 불선사에서 박영호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41년 해화불교전문학교 졸업
70년 태고종 중앙총회의원
74년 태고종 경북교구총무원장
85년 태고종 경북교구 총회 의장
현재 대구 법흥사에 주석



불자에게 가장 큰 고통은 깨닫지 못하고 무명속에 있는 것 초발심으로 더욱 정진하세요

목동정에 할 수가 있어 생활수행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복으로 기도를 한 경우에도 기도도 풀입하여 마음이 비워지고 순수해졌을 때 영험이 나타나는 것이지, 마음속에 뭔가를 버리는 욕심이나 조급함이 가득차 있을 때는 영험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서는 기도의 영험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스스로 병을 치유한 나의 체험담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60세가 가까워지자 기력이 예전같지가 않았습니다. 40대시절 포교에 매진하면서 한편으로는 태고·조계종간의 분류를 수

습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기력을 소진했던 탓인지 피로가 누적되고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몸은 곧 마음을 반영합니다. 몸이라는 글자의 한획만 바꾸면 맘이 되는데 이는 곧 마음의 준말입니다. 예로부터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고 했어요. 특히 얼굴은 열이 드나드는 굴(동굴)이라고 해서 그사람의 전체를 대변하는 곳으로 중시했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뜻인데 지나치게 힘을 쓰거나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노여워하는 것은 모두 병의 원인이 됩니다.

아무리 울고 좋아 보이는 것도 순리를 좇아서 해야지 욕심으로 하면 부작용이 생기지요. 자기몸이라도 합부로 굴러다니는 것이 과보를 받게 되지요. 중단사태 이후 십수년을 쉴 사이없이 신경을 과도하게 쓰다보니 병이 올 수 밖에요. 한의원 에 가서 진맥을 하고 약을 지어 먹어도 차도가 없자 큰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간경화발기증세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승려로 살다가 죽으니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까지 부처님전에 기도나 열심히 하다가 임종을 맞이하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부터 관세음보살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렸는데 여러달이 지나면서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밤, 도저히 오늘밤을 넘길수 없겠다 싶어요.

“과거 수억겁을 지나오면서 아프지 않은 때가 있었겠는가, 아프고 아프지 않은 것은 오직 마음의 상(相)뿐이다”고 한 생각을 돌이켜 몸을 간신히 추스리고는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부처님을 향하여

여시아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여시아문은 '물은 바, 천, 지의 어긋남도 없이 전해졌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주소: 충로구 경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참선요지(參禪要旨)

선(禪)은 가장 궁극적인 일이며, 모든 부처님의 정법안경(正法眼藏)이다. 이 일은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같이 소멸해 버린 자리(言語道斷 心行處滅)이며, 생각으로는 미칠 바가 아니다.

그러나...

허운(虛雲)화상 법어, 대성(大晟)스님 옮김 66면형 278쪽/값5,500원/ 여시아문 펴냄

주머니속 대장경 301-선(禪)



허운(虛雲)화상의 참선 수행 요결

초심자는 공부를 해도 향상되지 않고, 구참자는 중간에 머물러 게을러지게 되니 선수행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스님의 일생은 진정한 수행자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준 귀중한 모범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깨달음의 법(法)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통째로 던지는 하나의 거대한 실천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안일과 나태, 그리고 온갖 이집과 자기 합리화에 대한 통렬한 질타이기도 하다. 결국 스님의 가르침은 스님 자신의 이러한 치열한 수행의 체험이 그대로 결정되던, 요긴한 말씀들로 가득차 있는 것이다. (홍기아의 말 중에서)

수 록 내 용

제1부 참선요지

- 제1장 참선의 선결 조건
1. 참선의 선결 조건
2. 성불(成佛)의 방편
3. 화두 참선법
4. 공부의 어려움과 쉬움

제2장 선방 법문

- 1. 이끄는 말
2. 공부의 입문 방법
3. 공부의 두 가지 어려움과 쉬움
4. 결론

제3장 참선경어

- 제4장 제석보다시증 (除夕普茶示衆)
제5장 수행과 불수행

부 록

- 1. 허운 화상 약전(略傳)
2. 어휘 해설
3. 인명 해설

제2부 선할법문

허운 화상(1840~1959)은 1840년 중국 복건 원주에서 출생하였다. 13세 때 처음 관음보살의 일대기 등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으며 19세 때 출가, 고산 용천사의 묘원화상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27세에는 모든 소임을 놓고 3년간 입념으로 관조와 염불을 하였으며 33세에는 천태산 용원암 용경 노화상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스님은 젊은 시절 온갖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불법을 구했으며, 갖은 병고와 역난에도 굴하지 않고 계율을 엄수하고 근교정진한 끝에, 중문의 심인(心印)을 깊이 깨달아 단절되다시피 한 5종 가경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외세의 침략과 공산 정권하에서도 승도를 수호하고 사찰, 불당의 파괴를 막았으며 대소 수실개소의 가함을 부린다는 한편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를 주고 불문에 귀의시켰다. 그의 문하에서 출가하거나 수계한 제자라는 이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